

## Research Topics

### 이슈 탐구

# 브라질 대선의 주요 변수: 좌파의 아이콘 룰라

김한철

올해, 2018년 10월 7일은 브라질 대선이 시행되는 날이다. 2016년 8월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의 탄핵 이후, 부통령이었던 미셸 테메르(Michel Temer)가 대통령으로서의 남은 임기를 약 2년간 수행한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의 변수는 전 대통령이었던 룰라(Lula)의 행보이다. 좌파의 아이콘으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룰라는 대선을 6개월 앞둔 올해 4월, 부패 혐의로 수감되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이번 브라질 대선! 대선까지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 역동적인 판세를 분석해 본다.

### 1. 2018년 10월의 선거

10월 첫째 주 일요일인 7일에는 대선과 함께 주지사와 연방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주의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시행된다. 대통령 선거와 주지사 선거는 당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주 후,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인 10월 28일에 결선투표가 행해진다. 한편 연방상·하원 의원과 주 의원 선거에서는 과반 득표와 상관없이 최대 득표자가 바로 당선된다. 이번에 연방상원의원은 전체 81명 중에 2/3인 54명을, 연방하원의원은 513명 전원을 선출하게 된다.



유력 대선주자: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룰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시루 고미스, 제라우두 아우키민, 마리나 실바 (출처: <https://www.poder360.com.br>)

각 정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어수선한 정국을 마무리하고,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어 새롭게 다시 출발할 진용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 정당은 7월 20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8월 15일까지 연방선거법원에 등록해야 하며,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은 8월 말부터 시작된다.

진영 별로 대선 출마를 밝힌 주요 인사들의 면모는 이미 드러나 있다. 먼저 좌파 진영에서는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Luiz Inácio Lula da Silva) 전 대통령, 민주노동당(PDT)의 시루 고미스 (Ciro Gomes) 대표, 브라질공산당(PCdoB)의 마누엘라 다빌라(Manuela D'Ávila) 리우데자네이루 주의원, 사회주의자유당(PSOL)의 길례르미 보울루스(Guilherme Boulos) 빙곤노동자단체(MSTS) 대표 등이 있다.

한편 우파에서는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연방하원의원, 민주당(DEM)의 호드리구 마이아(Rodrigo Maia) 연방하원의

장, 노부(Novo)의 주영 아모에두(João Amoêdo) 등이 꼽힌다. 사회민주당(PSD) 소속이었던 엔히키 메이렐리스(Henrique Meirelles) 재무장관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임하고, 당적을 현재의 여당인 브라질민주운동(MDB)으로 옮겼다.

그리고 중도진영에서는 지속가능네트워크(Rede)의 마리나 시우마(Marina Silva) 전 연방상원의원,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제라우두 아우키민(Geraldo Alckmin) 상파울루 주지사, 기독교노동자당의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Fernando Collor de Mello) 연방상원의원, 포데무스(Podemos)의 아우바루 지아스(Álvaro Dias) 연방상원의원 등이 대선 주자이다.

## 2. 룰라의 수감 이후 요동치는 정치판

대선을 약 6개월 앞둔 4월 5일, 룰라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결정되었다. 권력형 부패 수사를 담당하며 유명세를 탄 세르지우 모루(Sérgio Moro) 연방 판사는 룰라에게 이튿날 오후 5시까지 쿠리치바(Curitiba) 시 연방경찰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그나마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강제 구인은 하지 않고 자진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룰라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격론 끝에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기각했고, 바로 구속 수감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복층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2017년 7월 1심에서는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18년 1월 2심에서는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동자당(PT)의 글레이지 호프만(Gleisi Hoffmann) 대표는 룰라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하여 군사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좌파진영에서는 룰라의 구속에 따라 올해 대선에서



룰라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위 (출처: <https://www.telesurtv.net/>)

다른 좌파후보로 단일화해야 할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그럴 경우, 노동자당(PT)은 구체적으로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전 상파울루 시장, 자키스 바기네르(Jaques Wagner) 전 바이아 주지사를 거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안으로 꼽히는 두 인물은 룰라가 출마하지 못해 발생하게 될 ‘플랜 B’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노동자당(PT)의 대선 후보로 여전히 룰라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룰라가 출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다른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룰라의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좌파와 중도진영에서는 민주노동당(PDT) 시루 고미스 대표, 지속가능네트워크(Rede)의 마리나 시우마 전 연방상원의원, 사회주의자유당(PSOL)의 길례르미 보울루스 빈곤노동자단체(MSTS) 대표가 룰라의 가치를 이어 받겠다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룰라 정부 당시의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와 직업 교육과 고용 확대 등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우파진영 후보들은 룰라의 구속 수감에 대하여 언급을 자제하면서 좌파진영을 자극하지 않고 있으며, 룰라의 지지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룰라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연방하원의원 (출처: <https://elpais.com/internacional>)

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노동자당(PT)에서는 이에 발맞춰 부통령 후보 모시기에 들어갔다. 유명 섬유업체 코치미나스(Coteminas)의 최고경영자인 조주에 고미스(Josué Gomes)가 그 중 한명이다. 그는 룰라 대통령 시절인 2003년에서 2010년까지 부통령을 지낸 섬유업계 재벌 주제 알렌카르(José Alencar)의 아들이다. 그는 테메르 대통령의 브라질민주운동(MDB) 소속이었으나 최근 아버지가 속했던 공화당(PR)으로 당적을 옮긴 상태이다.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은 수감된 상태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자당(PT) 지도부에 보낸 옥중 서한에서 무죄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SNS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으로 도피할 수도 있었으나 원치 않았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달아나지 않고 모든 문제에 맞설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동영상 메시지는 연방 경찰에 수감되기 직전, 상파울루주 상베르나르두두캄푸(São Bernardo do Campo)에 있는 금속노조 건물에 머무는 동안 제작하였다. 룰라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동영상을 여러 편 제작해 놓았고, 노동자당(PT)은 이 동영상 시리즈를 10월의 대선 캠페인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 동영상이 표심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룰라가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룰라가 지원하는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룰라의 수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생기며 노동자당의 지지율도 약 20%까지 올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 테메르 대통령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워낙 안 좋아 지지율이 한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세프 탄핵 이후 9%까지 떨어졌던 노동자당의 지지율은 룰라의 수감 이후 예전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룰라의 향후 행보에 달려 있다.

### 3. 극우 인사 보우소나루의 돌풍

룰라의 수감과 함께 가장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은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연방하원의원이다. 극우성향의 보우소나루 의원은 범죄에 대한 초강경대책을 앞세운 군 장교 출신이다. 그동안 동성애자와 범죄에 대한 극단적 발언으로 이슈를 만들어 온 보우소나루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에 브라질 정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군부 독재가 끝나고 집권한 중도와 좌파 정당들이 30여 년간 부패와 경기침체, 범죄 등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 따른 기존 정당들의 불신도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유력 대선 주자인 룰라가 수감된 탓도 있고, 전례 없는 높은 범죄율과 경기침체 상황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장을 원하고 있다. 보우소나루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을 합쳐 놓은 인물이라고 말할 정도이며, 노상강도들과의 전면전도 불사할 태세이다. 따라서 취임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던 두테르테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보우소나루의 메시지는 1964년 이후 20년간 지속된 군사독재에 대한 향수를 나타내며 범죄에 시달려온 브라질 국민들, 특히 젊은 층 사이에 지지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보우소나루는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분위기 조성에도 능하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7%는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쿠데타를 지지할 것이며, 35%는 부패 척결을 위한 쿠데타를 지지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종교가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

측되었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이나 개신교가 교세 확장을 통해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스타두 지 상파울루(Estado de São Paulo) 신문에 따르면, 현재 유권자의 종교별 분포는 가톨릭 55%, 개신교 27%, 기타 18%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가톨릭 유권자들이 8천만 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개신교 유권자들의 수도 4천만 명 가까이 되기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우파 성향의 대선 후보들이 개신교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우소나루는 본래 가톨릭 이었으나 복음주의 개신교로 바꿨으며 개신교 지지자들로부터 전통적 가족 가치의 수호자로 인식되고 있다.

#### 4. 대선 5개월 전 여론조사의 향방

대선 5개월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는 룰라가 출마할 수 있는 경우와 출마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의 경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137개 도시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오차범위는 ±2.2%이다.

먼저 룰라가 불출마한다고 가정했을 때, 1위는 사회자유당의 보우소나루로 18.3%, 2위는 지속가능네트워크(Rede)의 마리나 시우바가 11.2%, 3위는 민주노동당(PDT)의 시루 고미스 9%, 4위는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제라우두 아우키민 5.3%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부동층이 45.7%에 달해 선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룰라가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위가 노동자당(PT)의 룰라 32.4%, 2위 보우소나루 16.7%, 3위 마리나 시우바 7.6%, 4위 시루 고미스 5.4%, 5위 제라우두 아우키민 4% 등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부동층은 26.7%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로 가면, 누구를 만나든 룰라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룰라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수감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만 가능하다면 여전히 가장 당선이 유력한 대선 주자임을 알 수 있다.

룰라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하여는 출마하지 못할 것 약 50%, 출마 할 것 41%, 모르겠다는 답변이 9%로 조사되었다. 또한 룰라를 구속 수감 한 것에 대한 의견에서는 정당 51%, 부당 38.6%, 모름 10.4%로 나와, 부패 혐의로 구속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과반수가 표출하고 있다.

## 5. 룰라는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룰라는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 모든 정치세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참여해야 하며, 자신에게도 출마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0년 자신의 대통령 퇴임 당시 지지율이 87%나 되었던 점을 상기시키고, 현 테메르 대통령의 한 자릿수 지지율을 비꼬기도 하였다.

한편 유럽의 전직 정상 6명은 ‘룰라를 지지하는 유럽 지도자들의 요청’이라는 문건을 통해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알로이지우 누니스(Aloysio Nunes) 외교부 장관은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 혐의로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브라질의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1980년 창당한 노동자당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룰라가 당선되면서 브라질 사상 첫 좌파정권을 탄생시켰고, 2006년 대선에서도 룰라가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2010년 대선에서 룰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호세프가 당선되면서 장기집권의 기반을 구축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4년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한 호세프가 2016년 8월 결국 탄핵되고, 10월 지방 선거에서까지 참패하면서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상태이다. 더구나 좌파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이콘으로 불리는 룰라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수감되면서 도덕성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이번 10월 대통령, 주지사,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당이 부활하

느냐, 아니면 존립에 위협을 받느냐 하는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주를 기반으로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명예회복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속 수감 중인 룰라 전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대선에 출마는 할 수 있을지, 지지층을 모아 영향력을 극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한철 — 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 포르투갈어 책임교수